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율전, 전주효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정유, 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신자들이 머무는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교회” ‘안중성전 새 교회당 헌당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드러



안중성전 새 교회당 헌당예배가 지난 5월 11일(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당1로 144번지 소재 신축 교회당에서 교회 제직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러졌다. 교회당 헌당에서의 준공기념 테이프 컷팅식에 이어 오후 2시 대성전에서 대교구장 조은찬 목사의 사회로 장수원 장로의 기도, 연합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당회

장 목사의 설교, 봉헌예식 순서로 예배가 드러졌다. 당회장 조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 조용목 목사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각 처에 많은 성전을 세우고 교회당과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는 과정에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

셨다. 조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열심을 갖고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 또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다”고 강조하셨다. 목사는 이어서 “그처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성경에 반하는 종교 다원주의·용공주의·혼합주의와 동성애 및 교회의 예배를 변질시키는 세속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책임과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신자들이 머무는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큰 기쁨으로 섬기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어서 건축위원장 유훈 장로의 건축경과보고와 봉헌위임 후 당회장 목사가 봉헌기도를 하시고 봉헌을 선언하시자 참석자들은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계속해서 건축 설계, 시공 회사의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한 감사패

증경, 봉사부서 임원 임명 순서가 있던 후 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제직과 성도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준 교회와 교회의 영광을 돌리라며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신 역사를 찬양하였다.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성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당로 866(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정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이충동) T.031-662-3731	인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당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희로 1416번길 34-26(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두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 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창로 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로 11(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재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보람동) T.044-862-3732
전주(호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 2(쌍계리) T.063-351-7518	신서 : 경남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 2(쌍계리) T.055-752-6675
은양 : 충남 아산시 청문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5월 2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실족하지 않고, 오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양원석 -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만 죄를 범하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무력감과 우울감이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주 실력이 부족한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혼자 연습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 시간 전후로 틈틈이 연습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토요기도회에서 성경을 주제로 설교하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성경통독을 강권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경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꼭 일독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성경 전권을 통독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 그 무슨 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취감과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말씀과 성경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후의 성경공부에도 적극 참여하여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알고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설교말씀과 특강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동안 마음 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저의 고만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통절하게 회개한 후에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놓여 심령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를 통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만나 주 안에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다른 반, 다른 부서의 동급생과 선후배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분을 주고받는 가운데 저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겨 봉사하였습니다.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관하는 ‘153 아카데미’의 “이슈 브레이크 편”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주제들이 제가 전에 매우 궁금해했던 사안들이었기에 더 주의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현대 신학과 관련한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저의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비성경적이고 이분주의적인 신학 서적을 읽으며 가졌던 의문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확고하게 성경적인 기독교관과

가치관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이어서 ‘153 아카데미’ 2기 과정도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수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세태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릇된 세상 풍조와 비성경적인 관념과 사상과, 복음전파와 교회를 훼방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성경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보다 교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습니다. 수련회에서 모든 순서가 다 은혜로웠지만 저는 특히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과 청년들의 주제발표 시간이 더욱 더 유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알았더라도 잘못 생각하고 그릇되게 이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며,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고 발표하고 강의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저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 저는 어떤 특별한 꿈이 없이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에서 학생들과 성경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또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비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젊은 날에 예배와 말씀과 교회 중심의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일찍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습관을 갖추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도모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현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교회학교 교사의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헌신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기를 그들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다.(시편 34:1) 아멘!

“잃은 드라마를 찾는 여인”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10절
- 찬송: 찬송가 324장(새찬송 534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잃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으나 아직 하나님을 떠나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 세 편이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속된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지극히 귀중하여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한다 하여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진리를 반복하고 있지만 단순한 반복만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기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가 결합하여 구원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고 철저히 나타내어 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잃은 드라마를 찾는 여인’ 비유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마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머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온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라 잃은 드라마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첫째, 어느 여자가 드라마 하나를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선 잃은 양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지만, 잃은 드라마마는 은으로 만든 돈으로서 생명이 없습니다. 양은 비록 우둔하거나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마는 의식이 없는 물체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드라마마는 인생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에 대하여 성경에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골 2:13)라고 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엡 2:1)라고도 하였습니다. 드라마마는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주인이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당황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은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

이 처한 위험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잃은 드라마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은 잃은 드라마마와 같아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잃은 드라마마 비유는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잃어버린 드라마마는 마트바다 틈새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나 진흙 속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푸라기나 마른 풀 속 일 수도 있고 양탄자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느 곳이든 중대한 문제는 잃은 드라마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태어난 가문, 성격, 외모, 재능, 인품, 학위, 경제 능력, 사회적 지위, 직업 등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서로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차이는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중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며, 잃은 인생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잃은 상태에 있는 이상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예의 바른가 예의 없는가, 존경받는가 아닌가, 유식한가 무식한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구별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중요성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다른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심장이나 뇌가 치명적인 병이 들었는데도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심 자체가 문제입니다. 항해하는 배의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물이 밀려들어오는데도 다른 곳에 이상이 없다고 태평인 선원들이 있다면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잃은 상태는 본질적인 것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헛되며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이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둘째, 비록 잃은 드라마마는 한 개였지만 여인은 그것을 애써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열 드라마마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잃은 한 개의 드라마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마의 가치로 따진다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드라마마를 잃은 여인에게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의 10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별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는 남자가 결혼 짐값금 형식으로 또한 사랑의 증표로 드라마마 열 닢을 줄에 꿰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하였습니다. 이 열 드라마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장신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 개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잃어버린 한 드라마마는 화폐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잃은 한 드라마마를 무시해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잃은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러기 때문에 잃은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고로 실종되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경우라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여 찾고 있다고 확신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하든지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이 대가족시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70여 명의 가솔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점차 애굽 생활에 익숙하여 갔으며 또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노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록 징벌하셨지만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로마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박대하고 로마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하였습니다. 비록 드라마마가 여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여도 그 돈에 대한 그 여인의 권리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잃은 자들을 향해 마귀가 손을 내밀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며 자기소유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잃은 영혼을 사탄이 가로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마 12:29) 하였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며, 강한 자를 결박한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셋째, 잃은 한 드라마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머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 집의 방바닥은 대개가 진흙이나 돌로 되어있었고 진흙이나 돌의 차가움과 습기를 막기 위해 방바닥 위에 짚을 깔아 놓은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드라마마를 찾으려면 짚을 면밀하게 걷어내고 방바닥을 쓸기까지 해야 합니다. 가족 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정도 있을 뿐이어서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하며 판으로 제조된 유리가 건축물에 사용될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은 17세기 이후 비로소 유리를 창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이 고르고 매끄럽게 얇은 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창유리는 제조가 어렵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왕족이나 부호의 저택 등 극히 한정된 건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사치품으로서 창유리 사용에 세금이 부과된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하니 작은 물건을 집안에서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잃은 드라마마를 찾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찾은 바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였습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마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었습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은 드라마마를 찾지만 한다면 기름이 얼마나 소모되던지 아까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목숨이란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소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마마를 찾기 위해 집을 쓸었습니다. 방에 깔아둔 짚을 털고 온 집을 쓸면 먼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은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산떨기 마른입니다. 여러분이 빗자루 질을 하는 것을 아니꼽게 여기고 신경질적으로 대항하지 마는 사람은 있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결신 카드까지 써서 내도록 했으나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그 마음이 변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도는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니지만 열매 맺는 것이 없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한 드라마마를 찾기 위해 많은 지푸라기를 털어야 하며, 빗자루로 쓸어 먼지를 날려야 한다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쯤이야 드라마마를 찾는 일의 가치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동서사방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명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모케 하는 자”(행 24:5)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여인은 잃은 드라마마를 찾기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어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전심전력했습니다. 여인은 등불과 빗자루를 드라마마를 찾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 등불 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옷을 수선하지 아니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집을 깨끗이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잃은 드라마마를 찾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등불과 빗자루는 다른 목적을 위

해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은 드라마마를 찾는 데 그토록 많이 사용한다는데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부끄러운 불만입니다.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지를 발간하고 방송을 하고 이러한 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주된 관심사를 뒤로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일이 매우 선량하고 세상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면 멀리 치우쳐 나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방편이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잃은 드라마마를 찾는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라 잃은 드라마마를 찾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흥미를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벗과 이웃’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벗과 이웃’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나오는 ‘벗과 이웃’과는 다른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는 모두 남성 명사로 사용되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여성 명사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여인들만이 참여한 잔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여자와 어린이가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기록에 보면 “떡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 14:21)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리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 기록에도 “떡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마 15:38) 하였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렸지 여자와 어린이의 숫자는 헤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과 어린 아이를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지위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믿음과 활동에 대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습니 다. 나인성 과부, 헬무즈 고침 받은 여인, 수모보 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에 소 용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명의 여인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자기 집을 언제나 기꺼이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울면서 뒤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현장까지 따라가서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심낙담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한 집에 모여 문들을 닫아걸고 있는데도 여인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로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인물들 중에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웃감장사를 하는 상당

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신자들 중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함께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찾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손익을 계산한다면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잃은 은전을 찾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열 드라마중 하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은 아까울 것 없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외침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매주 평균 500명, 전도대회 기간에는 매주 1천명이상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즐거움으로 결신자 호명과 환영의 노래와 꽃 송이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따분하여 예배시간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도 구원과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며,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차이를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나와 함께 즐기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여러분이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결론 지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천사 혹은 사절을 뜻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은 그를 인도한 사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기쁨도 됩니다. 하늘에는 있는 천사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천사도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성도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가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14) 하였으며,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지고 저희를 전지시는도다”(시 34:7)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왕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은 지옥이 어떠한 곳이며 또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매료되어 복음을 떨치하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을 보는 부모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필박하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그 아내의 기쁨을 무엇으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효자로 여기던 부모님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볼 때 그 자녀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내 가족, 나의 친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쁨에 공감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잃은 드라마마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라 잃은 드라마마를 찾았노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